5. 신명기(申命記)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의 ‘신’자는 ‘하느님 신’자가 아니라 ‘펼 신’, ‘원숭이 신’자로 ‘거듭하다’, ‘반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계명을 되풀이하는 기록’이라는 뜻으로,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의 하느님 계명들이 반복하여 요약·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세가 율법에 익숙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에게 하느님의 법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이집트 탈출 후 광야 생활 40년을 회고하며 하느님을 선택할 것인가 우상을 숭배할 것인가 축복과 저주의 두 갈래 길을 설명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모두 죽었고 이제 2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생활의 의미를 모르는 그들에게 세 번의 설교를 통해 그동안의 체험을 정리하여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서를 써서 사제들과 원로들에게 주면서 안식년마다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앞에서 똑똑히 봉독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계명을 직접 전달해주던 자신을 대신하여 기록된 말씀을 듣고 실천하도록 명령하고 최후를 맞이합니다.

신명기에 드러나는 신학적인 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느님은 바로 야훼이시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달리 유일하게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방 잡신의 우상숭배 유혹을 물리치고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유일한 성소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일치해야 한다. 그 일치를 드러내는 표지인 율법에 순종하고 계명을 실천하면 생명과 행복이 그렇지 않으면 죽음과 불행을 맞이할 것이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들에게 레위기에 이어 두 번째로 어려움을 겪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사실 우리 생활과 관련이 없는 듯한 법규정들과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구약성경 신학의 핵심을 담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책입니다. 또 신약성경에서 창세기, 시편, 이사야서와 더불어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성경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책을 정성을 다하여 읽어봅시다. 구약의 하느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는 신앙적인 결단을 통해 하느님께 충실할 것을 강조한 이 신명기의 내용은 신약의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